



우기는 더 나은 미래의 밑거름 화재와 조류독감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주)하림

오 정 규 · 협회 경영기획부 과장

이번 탐방은 전주지부의 추천으로, 전통적인 원자재 공급개념의 노동집약적 양계사업을 생산과 가공, 유통을 아우르는 통합경영의 개념을 도입하여 고부가가치 식품사업으로 변모시킨 국내 대표적인 닭고기 제조업체인 전북 익산시 망성면 소재 (주)하림을 방문하고 총무팀 이원호 팀장과 방화관리자 박동현 대리를 만나 회사 현황, 방화시설 현황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1. 회사 현황

하림의 직원들이 회사를 소개할 때는 늘 김홍국 회장의 얘기부터 시작한다. 그만큼 그는 직원들의 존경과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외할머니께 받은 병아리 10

마리를 기르는 것을 계기로, 농고를 졸업한 김홍국 회장이 1978년 전북 익산의 작은 종계 사육장을 인수해 본격적인 양계사업에 뛰어들면서 하림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식생활 패턴이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콤비질러라인을 살펴보고 있는 김홍국 회장

탄수화물 중심에서 단백질로 이동함에 따라 닭고기 수요는 급격히 증대하였고, 하림은 1991년 익산에 5만평 규모의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하루 30여만 마리의 닭을 처리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닭고기 생산업체로 우뚝서게 되었다.

그러나 거칠 것 없어 보이던 하림의 성장은 2003년 5월 도계가공공장 1만 여평이 화재로 허룻밤 사이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옆친데 덮친 격으로 그해 12월 불어 닦친 조류독감 파문으로 인해, 양계업체들이 부도로 줄줄이 무너지는 가운데 대리점에서 “문 닫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떠돌 정도로 부도의 위기를 겪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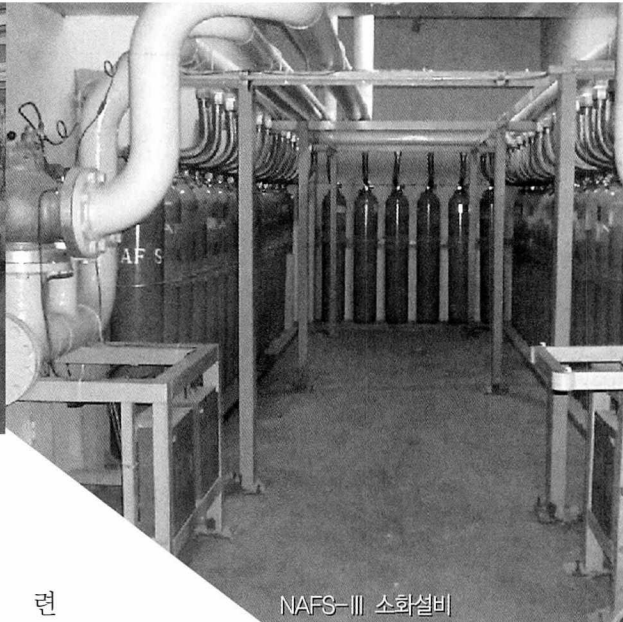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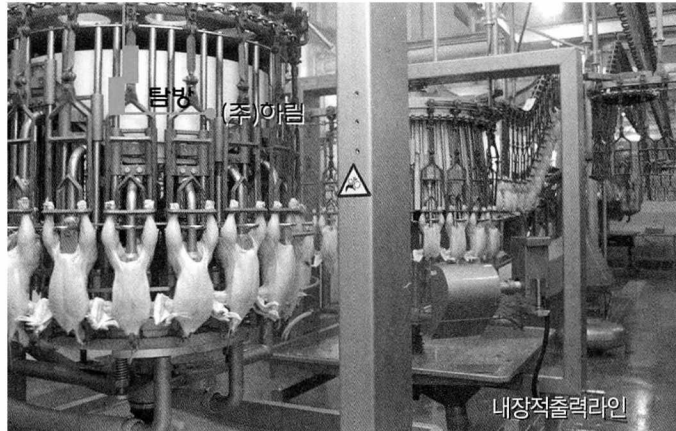
피를 말리는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하림의 1,300여명 직원들의 단합과, 경영진의 과감한 결단과 노력으로 1년에 걸쳐 무려 547억원을 투자한 동양 최대의 첨단 시스템을 갖춘 도계공장을 완성 시킴으로써, 현재는 종업원 2,000여명, 협력사 중

사인원 1,200명에 계약사육농가 700호, 연간 매출액이 5,000억원을 넘는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

2. 건물 특성 및 방화시설 현황

도계가공공장과 육가공공장, 기타 폐수처리 관련 시설로 구성된 공장은 도계가공공장에서 처리된 닭이 육가공공장에 유기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도계가공공장은 대형화재로 공장을 소실했던 쓰라린 경험을 교훈삼아 화재예방 기능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공장 내·외부를 비롯해 모든 공장 설비를 불연소재로 한 것은 물론, 최첨단 방화벽과 자동경보 시스템을 도입, 화재예방은 물론 화재시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었다.

소방시설도 대폭 강화하여 화재발생 이후 스프링클러, 비상조명등 설비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외에



스프링클러설비 3개소와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1개소를 갖추고 있다. 또한 공장 전역에 걸쳐 자동 화재 탐지설비와 자동화재 속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경보설비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3. 경영진의 소방, 방재에 대한 관심 여부

(주)하림의 방화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박동현 대리는 요즘 순찰 때 마다 신바람이 난다. 총무팀에서 행정업무와 방화관리 업무를 병행하느라 비록 힘들긴 하지만 화재발생 이후 방화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한 직원들이 예전과는 달리 그의 요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오히려 격려해 주기 때문이다.

대형화재 발생으로 인한 경영위기는 경영진의 소방, 방재에 대한 관심을 증폭하는 계기가 되어, 매월 15일 자체훈련과 소방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주야간 및 공휴일 방화 순찰, 전 직원 소화기사용법 반복교육과 작업 전 신고 및 교육 후 작업 등 일상화된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소방훈련도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기존의 형식적인 훈련에서 벗어나, 기초훈련과 부분훈련, 도상훈련, 조직 강화훈

련 등 4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규모로 실시하고 있다.

4. 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위험관리에 대해

“전문적인 방재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추고 매년 무료로 실시하는 협회의 안전점검이 평소 방화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하는 이원호 팀장은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협회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미비한 내용을 그 즉시 개선하지 못하는 것은 몹시 아쉽다며, 점점 뿐 아니라 직원들의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시청각자료를 풍부히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21세기 동북아 농업의 리더십 확립, WTO 하에 세계경쟁력을 갖춘 선진 육계계열화 업체, 1차 농산물을 2, 3차 산업으로 발전시킨 식품산업 경영 모델 확립의 자부심을 갖고 우리나라 양계산업 선두에 우뚝 선 하림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이번 탐방을 마쳤다. ☺